

제주도의원 잇따라 당선무효 위기

1심 무죄 양영식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1심 징유2년 임상필 의원 배우자는 항소 기각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주도의원 의원 2명이 당선 무효 위기에 맞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갑) 제주도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에게 “자체 여론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술어진 운동

장”이라는 취지로 발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기관, 대상, 기간, 장소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수치 또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지인에게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소수점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마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충분하다”면서 “그렇다면 피고

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양 의원은 “판결문을 받아보는대로 상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상필(더불어민주당, 대전·중문·예래) 제주도의원의 부인 A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A씨는 앞선 지난 5월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4월 선거구인 B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C씨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있다.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은 C씨에게 건네준 200만원이 ‘손자를 돌봐준 보답으로 줬다’고 하지만, 실제 C씨는 임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주로 일했고, 손자를 돌본 것은 극히 미미한 점에 비춰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는 과거 약속인 금권선거를 반복해 공정성을 훼손했다. 특히 이를 잘 알고 있는 후보자 부인임에도 직접 범행에 나섰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농어업인 용자 부당감면 1억6900만원 추정 도, 5년간 전수조사 158건 적발... 경찰수사도 의뢰

농업인 용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60건에 달했으며, 감면액수도 1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업인 용자 감면 위법 사례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일제 전수 조사 결과, 지방세 부당 감면 총 158건 1억3200만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부당감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가산세 포함 155건, 1억 6900만원을 추정 조치했다. 자진 신고되지 않은 3건은 가산세를 포함 추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차로 부당감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10% 적용·추징했으며, 향후 수사결과 등을 확인해 가산세 30%를 추가징수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6월말 도내 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A법무사가 농어업인 용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했다. 이후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전체 자료를 조사하고 적발 사항을 수사 의뢰했으며, 2014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농어업인 용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부당감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소명서를 지난 6일까지 제출 받고 위법사례에 대해 부족분을 추징했으며, 지난 10일 경찰관서에 수사요청 조치를 완료했다. 조상훈기자

올 상반기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568명

제주 매년 700~800명대 기증운동본부 9일 기념식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의 숭고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박진탁 이사장) 제주지부는 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시 장기 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救)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9월 9일을 전후해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제주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진행됐다. 제주도는 2012년 1월 전국 최초로 ‘장기기증의 날’을 조례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2005년과 2009년 자신의 신장과 간을 생면부지 타인에게 기증한 김주백 목사에게 제주지사 표창을, 2016년 1월 미국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생면부지

외국인의 생명을 살린 고 김유나양의 어머니 이선경씨에게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10월 폐지되는 할머니를 돕다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져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고 김선웅군의 유가족에게 생명의 별을 전달하며 김군의 숭고한 생명나눔의 뜻을 되새겼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온 9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제주지역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2016년 816명에서 2017년에는 709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에는 88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568명으로, 전년 동기(303명)보다 증가했다. 작년 한해 뇌사 장기기증은 13건, 올해 상반기는 4건이다. 문의 제주지사 064-762-2114.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해안가서 50대 숨진채 발견

11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안을 걷던 주민이 갯바위에 엎드려 숨져있던 최모(58)씨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발견

당시 물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최씨의 옷과 휴대폰이 발견됐다.

제주해경은 사고 당시 최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추석 앞둔 떡집 풍경. 추석前夕을 앞둔 11일 제주시 연동 한 떡집에서 직원들이 떡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에어부산 기체결함 회항

11일 제주에서 출발해 김포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결함으로 이륙한 지 10여분만에 회항했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가던 에어부산 BX 8092편이 이륙한 지 10여분 만인 11시15분쯤 기체 결함을 발견하고 제주로 회항, 11시25분쯤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모두 163명이 타고 있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계기판에 엔진의 배기 가스 온도가 한계치를 벗어난 것으로 표시돼 긴급히 회항을 결정했다”면서 “기체결함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추석 연휴, 교통사고 주의하세요”

최근 3년 평균 56건 발생... 1명 사망·105명 부상

제주에서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가 ‘연휴 시작 전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분석한 2016~2018년 추석 연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평균 5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04.7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휴 기간을 일자별로 살펴보면 연휴 시작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추석 전날에 집중됐다. 연휴 시작 전날 평균 교통사고는 14건으로 0.3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추석 전

날 평균 교통사고는 9.3건에 그쳤지만, 0.7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부상을 입어 인명피해가 몰렸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일 평균 7건이 발생했는데, 연휴 전날과 추석 전날이 각각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석 당일과 다음날은 나란히 1.3건씩 발생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2시~4시 2건, 낮 12시~2시 1.3

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관계기관과 협업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장시간 동안 운전할 때는 휴식을 취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주요 도로에서 자행되는 난폭·압제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암행순찰차’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서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양배추 브로컬리 무우 양파 배추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양배추·브로컬리 양파배추 (500㎖당 500배 희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 파종전 침치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강력한 라이미효과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행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